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권 2호 (2015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수균 · 신현희 · 안정신 · 정영숙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장혜인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심다혜 · 이승연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신다원 · 방희정 · 옥 정

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와의 관계 김상미 · 김지연 · 조종열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김태화 · 김혜리

초기 한글 읽기 발달에서 실행 기능의 역할: 억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주나래 · 최영은 · 조종열

만 10개월 영아들의 언어적 단서를 활용한 타인의 목표 행동 이해 김민주 · 송현주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배민정 · 정윤경

형태론적 언어 정보 활용을 통한 타인행동 목표 추론 능력의 영아기 발달 김은영 · 송현주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8 권 제 2 호 / 2015. 6

중년자녀가 지각한 노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수균 · 신현희 · 안정신 · 정영숙 /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장혜인 / 19
중학생의 아버지 애착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심다혜 · 이승연 / 41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신다원 · 방희정 · 옥 정 / 63
형태소인식의 한국어와 영어 간 전이와 읽기 쓰기와의 관계 김상미 · 김지연 · 조증열 / 89
노인과 대학생이 정치적 선택상황에서 고려하는 정보의 차이 김태화 · 김혜리 / 107
초기 한글 읽기 발달에서 실행 기능의 역할: 억제 능력 및 인지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주나래 · 최영은 · 조증열 / 125
만 10개월 영아들의 언어적 단서를 활용한 타인의 목표 행동 이해 김민주 · 송현주 / 145
어머니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배민정 · 정윤경 / 159
형태론적 언어 정보 활용을 통한 타인행동 목표 추론 능력의 영아기 발달 김은영 · 송현주 / 175

한국발달심리학회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신 다 원 방 회 정* 옥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 상호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치심 경향성은 학교생활부적응에, 죄책감 경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수치심 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에 영향을 미쳤고, 죄책감 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에 부적 영향력을 보였고 반성적 반응양식에 정적 영향력 보였다. 그리고 반성적 반응양식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이에 수치심 경향성 및 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은 억제효과를 가져 학교생활부적응을 감소시켰으며, 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각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를 확인한 결과, 남녀 집단 간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청소년은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이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

† 교신저자 1: 방회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hjbang@ewha.ac.kr

‡ 교신저자 2: 옥 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42-7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E-mail: oj256@hanmail.net

수치심, 죄책감은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까지도 필요로 하는 정서로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의 자부심과 같이 자기반영으로부터 기인한다 (Greenberg, 2002). 과거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연구들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화되어 있어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도덕적 정서로서 역할 행동을 하도록 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Lutwak & Ferrari, 1997; Lester, 1998; Gilbert, 2000; Tilghman-Osborne, Colw, Felton, & Ciesla., 2008; McMurrich & Johnson, 2009).

최근 수치심과 죄책감을 분리하여 죄책감의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Schmader & Lickel, 2006; Strelan, 2007; Ranganathan & Todorov, 2010), 수치심 및 죄책감이 언제 적응적이고 부적응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따라서 수치심/죄책감 경향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다르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설명력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Nolen-Hoeksema(1991)는 우울에 대한 반응양식 이론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에 반응하는 일관된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중 반추적 반응양식은 의도적인 반응으로 선택되는 사고와 행동으로 반복적이고, 순환적이고 부정적이며 긴 연쇄를 이루는 의식적인 사고와 행동패턴으로 내부초점적 반응이다. 이후 내부초점적 반응양식에도 긍정적 반응양식이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Bagby & Parker, 2001; Cox, Enns, & Taylor, 2001; Trapnell & Campbell, 1999)이 등장하며 반성적 반응양식이 제안되었다. 반성적 반응양식은 '부정적 감정에 직면하여 우울의 원인과 우울한 기분을 이야기하는 기저의 사고과정을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사고와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반추적 반응양식은 우울을 지속시키는 반면, 반성적 반응양식은 우울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우울과 관련성이 높은 수치심/죄책감 경향성 이후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이 하나의 과정적 변인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Lewis(1971)는 남녀의 차별적인 인지양식에 따라 수치심/죄책감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다. 여성들은 장의존적 인지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더 잘 경험하며, 남성들은 장독립적 인지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죄책감을 더 경험하는 경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 연구 결과는 그녀의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으나(Lutwak, Ferrari, & Cheek, 1998; Harder & Zalma, 1990),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죄책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수치심, 죄책감에 있어 성차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Orth, Soto, & Robins, 2010; 김경희, 2002; 김지연, 2010; 김정민, 2012). 이러한 성차는 반응양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정서에 대해 반추적 반응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Nolen-Hoeksema, Morrow, & Fredrickson, 1993; 최미래, 2004).

한편 구체적인 잘못과 관찰 가능한 행동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는 실제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부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고를 갖는 것, 책임을 소홀히 한 것, 목표 성취 실패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죄책감을 경험할 수 있고(Williams & Bybee, 1994),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은 특히 위협적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로 자의식이 강해지고 객관적 지각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즉, '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인지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타인의 평가 대상이 됨을 인식하게 되고 (Crozier & Burnham, 1990) 타인의 시각에 민감해진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자기 평가에 집중함으로써 수치심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Diclemente, Hansen, & Ponton, 1996). 평가에 민감한 청소년의 수치심 및 죄책감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수치심과 죄책감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청소년의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청소년기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생활적응의 관점에서 수치심 혹은 죄책감을 경험하는 경향성인 수치심 경향성 및 죄책감 경향성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 및 죄책감 경향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응양식을 하나의 과정적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과 적응적 측면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수치심, 죄책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성차와 관련된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에 따라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탐색할 것이다.

수치심과 죄책감

수치심(shame)과 죄책감(guilt)은 스스로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self-reflection) 혹은 자기 인식

(self-awareness) 과정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 불린다(Tangney & Fischer, 1995). 자의식 정서는 자기(self)와 정서(emotion)가 만난 인지-의존적 정서로, 특히 복잡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Tracy, Robins, & Tangney, 2007)는 점에서 기본정서와 차이가 있다. 정서는 지향해야 할 목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게끔 조직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의식적 정서는 사회적 지위의 유지 및 향상, 집단의 배척을 막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주로 진화되어 왔으며 (Keltner & Buswell, 1997; Tracy & Robins, 2004), 도덕적 판단, 친사회적 행동, 주관적 안녕감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Tangney, Stuewig, & Mashek, 2007; Tracy, Cheng, Robins, & Trzesniewski, 2009). 즉, 자의식적 정서는 고도로 역동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위계에 맞게 발달된 정서이며(Tracy, et al., 2007),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고(Tangney & Fischer, 1995), 사회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Leith & Baumeister, 1998).

수치심과 죄책감 모두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기반한 정서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중첩되며, 종종 혼용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 두 정서의 현상학적 경험 및 후속 행동이 다르고,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가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Jacoby, 1991; Lewis, 1971, 1987; Lindsay-Hartz, 1984).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별점으로 특히 심리내재적인 기제를 중심으로 하는 구분이 우세하다. Lewis(1971, 1987)는 수치심의 경험은 자기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둔 반면, 죄책감은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행해진 또

는 행해지지 않은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보았다. 수치심은 자기 전체를 문제시하는, 광범위한 평가절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고 움츠러들며 도망치고 싶게 한다. 그러나 죄책감은 자기 전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문제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온전히 유지된다. 대신 문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잘못된 고백, 사과, 보상 등과 같은 타인 지향적 행동을 하게 된다(Tracy et al., 2007).

많은 연구들이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이 서로 다른 양상의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수치심 경향성은 우울, 불안, 섭식장애 등 정신병리와 일관적으로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Kim, Thibodeau, & Jorgensen, 2011; Fergus, Valentiner, McGrath, & Jencius, 2010; Schoenleber & Berenbaum, 2010; McMurrich & Johnson, 2009). Lynch, Hill과 Nagoshi(2012)는 수치심은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안지현(2013)은 수치심이 분노와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반면 수치심을 통제할 죄책감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Orth et al., 2010), 죄책감 경향성은 오히려 화의 건설적 해결(Tangney et al., 1996), 공감능력(Leith & Baumeister, 1998), 책임 수용, 피해자의 안녕을 걱정함(Ferguson, Stegge, Miller, & Olsen, 1999)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 또한 죄책감 경향성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접근동기를 예측하기도 하며(Rangganadhan & Todorov, 2010; Schmader & Lickel, 2006), 청소년의 죄책감이 높을수록 규칙위반행동이 낮아진다(김경연, 하영희, 2003)

많은 연구들이 죄책감 경향성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죄책감 경향

성의 긍정성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으며, 죄책감 경향성이 언제 보다 적응적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

적응(adjustment)은 '개체의 욕구와 사회환경의 어떤 조건과의 조화관계'(서봉연, 1982)이며 '신체적, 사회적 환경과 조화있는 관계를 수립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유기체의 활동과정 및 변화'(박아청, 1999)이다. 이처럼 적응은 개체와 환경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환경에 순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체나 외부요인을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과정을 의미한다(박영신, 2004).

학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행한다고 할 때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교생활적응에도 적응의 보편적 정의가 반영된다. 학교생활적응이란, 적응의 개념을 학교라는 특정 맥락에 한정된 개념이다. 청소년의 생활환경은 크게 가정, 학교, 사회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며 학교의 환경과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것을 학교생활적응이라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에는 수업참여도, 학습노력, 학습행동통제, 학습지속성과 관련된 학생의 적응행동 즉 학업적 적응행동(문은식, 2001)과 교내규칙, 준비물 지참 등 교내 생활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김용래, 1993) 뿐만 아니라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잘 조화되고 성

공적인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교사, 또래 친구 등 의미있는 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도 포함한다(최지은, 2002).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결과적인 학업성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학생 개인이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곽수란, 2006).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ruminative response style)은 Nolen-Hoeksema(1991)가 제안한 우울에 대한 반응양식 중 하나이다. 반추적 반응양식에서의 사고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또는 “왜 나는 이런 식의 기분을 느낄까?”와 같은 의문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반추적 반응양식은 우울한 기분이 들었을 때 우울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며(Nolen-Hoeksema & Morrow, 1991), 많은 연구들이 반추적 반응양식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Treynor, Gonzales, & Nolen-Hoeksema, 2003; Nolen-Hoeksema, Paker, & Larson, 1994; Nolen-Hoeksema & Morrow, 1993).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반추적 반응에 몇 개의 하위 요인이 존재하며, 각각의 하위 요인들은 서로 다른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Bagby & Parker, 2001; Cox et al., 2001). Trapnell과 Campbell (1999)은 ‘자기몰입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울한 기분에 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심리적 부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지식을 높여서 심리적 적응에 기여한다고 지적하였다. 자기에 대한 위협, 상실, 부정과 같은 부정적 자기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곱씹으며 미래

보다는 과거에 대한 후회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고 경향을 ‘반추적 자기주의(ruminative self-focus)’로, 이에 반해 부정적인 정서에 의해 동기화되지 않으며 지적 호기심에 의해 일어나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대안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유쾌하게 탐색해가는 사고 형태를 ‘반성적 자기주의(reflective self-focus)’라 구분하였다.

이에 Treynor 등(2003)은 반응양식 질문지(Reponse Style Questionary, Nolen-Hoeksema & Morrow, 1991)의 반추적 반응척도의 문항들이 2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항의 2요인 구조는 원했던 상황과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을 수동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반추적 반응양식, 자신의 우울증상을 경감시키고자 방향성을 가지고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인지적인 문제해결과정에 착수하는 반응을 반성적 반응양식으로 명명하였다.

수치심/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과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간의 관계를 살펴 본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서로 다른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 송수민(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죄책감 경향성이 반성적 반응양식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수치심 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박지현(2007) 역시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따른 부적응 정서와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치심은 남녀 모두 학교생활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수치심이 높을수록 관계적 측면이 강한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많

이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중학생의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에 관한 죄책감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죄책감 수준이 높으면 권장행동을 많이 하고, 금지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이지연, 2011). 최창석(2009)의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모두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영향력 측면에서 죄책감 경향성이 수치심 경향성 보다 학교생활적응과 더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Roos, Salmivalli, 와 Hodges(2014)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죄책감 경향성은 학교장면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했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켰으나 수치심 경향성은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했다. Tangney와 그의 동료들(2007)도 죄책감 경향성은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고 수치심 경향성은 부적응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죄책감 경향성은 후기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감소시키고 수치심 경향성은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다(Stuewig & McCloskey, 2005; Tilghman-Osborne, et al., 2008).

이처럼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과 관련된 학교적응 연구들은 대부분 죄책감 경향성이 수치심 경향성 보다 더 적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Barrett(1995)은 수치심의 행동적 사회적, 개인적 기능을 분석한 연구에서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거나 노출을 피하려는 행동조절 기능과 대인관계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낮추어 의사소통하는 사회조절기능,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여 표준이나 준거를 강화시키는 자기 조절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시엽, 김기범(2003)은 수치심에 대한 심리적 기능에 관한 내용을 절제의 기능과

대인관계에서의 개선과 유지의 기능, 개인내적인 반성이나 준거를 강화시키는 자기조절기능과 관련시켰다. 이들은 수치심이 죄책감과 유사하게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수치심 경향성을 갖는 사람은 기준, 규칙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한 자신의 행동, 또 자신에 대한 평가 등을 안다. 이러한 인식들이 발달할 때에만 수치심이 생성되며, 그런 면에서 수치심은 불안을 야기하고 각성하는 기능을 갖고 부적합한 행동을 교정하는 대안적인 행동들을 유도한다고 본다. 따라서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일상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죄책감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 차이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거의 부정적인 사건 이후에 경험하게 되므로 많은 기존연구에서 수치심/죄책감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다뤘다(Lutwak & Ferrari, 1997; Stuewig & McCloskey, 2005; Tilghman-Osborne, Cole, Felton, & Ciesla, 2008). 이들 연구는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과 더 많이 관련된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의 수치심 경향성이 어떠한 변인에 의해 보다 더 부적응적이 되거나 부적응적인 측면이 감해질 수 있는지, 죄책감 경향성은 어떠한 변인에 의해서 보다 더 적응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정적 사건 이후에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 이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동거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즉,

반응양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반추적, 반성적 반응양식은 우울과 각각 상이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이뤄져 왔고(Nolen- Hoeksema & Morrow, 1993; Nolen -Hoeksema et al., 1994; Treynor et al., 2003; 김진영, 2002), 이러한 반응양식은 부정적, 긍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적 변인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인의 반응양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가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반응양식이 갖는 매개효과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연구모형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이 각각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와 수치심 경향성 및 죄책감 경향성이 반추적 반응양식 혹은 반성적 반응양식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였다. 한편,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

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반응양식이 완전매개 할 가능성도 검증하고자 연구모형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이 학교생활적응으로 직접 가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 문제 2.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연구 문제 3.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4.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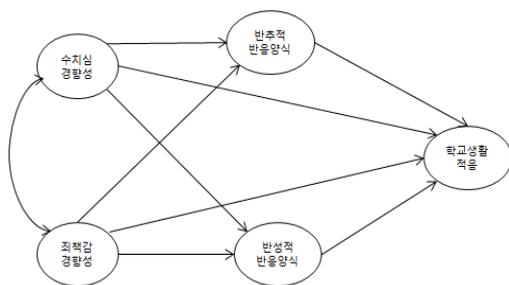


그림 1.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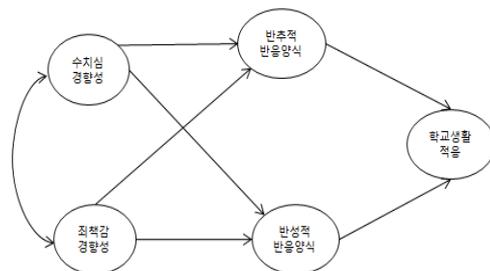


그림 2.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경쟁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2개 중학교 1, 2, 3학년과 2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남녀 각 300부씩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587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43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54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자의식적 정서척도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Tangney, Wagner와 Gramzow(1989)에 의해 개발된 자의식적 정서 척도-청소년용(Test of Self-conscious Affect-Adolescents: TOSCA-Adol)을 류설영(1998)이 우

리나라 청소년에게 맞는 상황으로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여 이를 상상하게 한 다음 자의식적 정서를 현상학적으로 나타내는 몇 가지의 대안 반응에 대해 5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50개의 반응이 평정된다. 각각의 시나리오 아래에는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비난 또는 원인의 외면화, 분리/무관심, 자부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50 문항 중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는 2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류설영(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수치심 경향성 .72, 죄책감 경향성 .7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 .74, 죄책감 경향성 .76이었다.

반응양식 척도

반응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진영(2000)이 제작한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도구인 RDQ(Responses to Depressed mood Questionnaire)를 사용한다. 반추적 반응양식과

표 1.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544)

	학년	남자	여자	합계
중학생	1학년	29	26	55
	2학년	39	64	103
	3학년	52	47	99
	전체	120	137	257
고등학생	1학년	-	61	61
	2학년	-	89	89
	3학년	137	-	137
	전체	137	150	287
합계		257	287	544

반성적 반응양식, 전환적 반응양식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반추적 반응양식 12 문항, 반성적 반응양식 10문항, 전환적 반응양식 8문항, 총 30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점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30문항 중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2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김진영(2000)의 연구에서의 각 반응양식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3,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 .87이었다.

학교생활적응 척도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김용래(1993)가 제작해 수정, 보완한 문항을 김용래(2000)가 타당화 분석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한다. 이 척도는 학교생활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수업적응, 학교환경적응, 학교교사적응의 5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문항형식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용래(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전체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학교환경적응 .90, 학교교사적응 .92, 학교수업적응 .82, 학교친구적응 .82, 학교생활적응 .78 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5였다.

절차 및 자료분석

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2곳에서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가 이루어졌다. 각 학교의 담당 교사에게 조사의 목적,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수

업시간과 자율학습 시간을 할애하여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졌다. 총 설문 시간은 15분~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Statistics 18 for Windows를 사용해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증 등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제외한 다른 척도들이 단일 차원의 척도이기 때문에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실시를 위해 이들 변수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문항 묶음화 방식 중 임의표집 방식(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을 이용하여 문항 묶음화를 실시하였다.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은 각각 총 12문항을 각 4문항씩 합산하여 수치심 I, 수치심 II, 수치심 III, 죄책감 I, 죄책감 II, 죄책감 III, 반추 I, 반추 II, 반추 III으로 각각 3개의 하위차원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반성적 반응양식은 총 10개의 문항에서 반성 I 과 반성 II는 각각 3개 문항씩 묶어 합산하였고 반성 III은 4개 문항을 묶어 합산하여 3개의 하위차원의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표 2. 주요 변인들의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544)

변인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수치심 경향성	12-60	15-57	35.38	6.70	-.24	.16
죄책감 경향성	12-60	19-60	42.94	6.26	-.24	.60
반추적 반응양식	12-60	12-60	39.64	9.64	-.20	-.25
반성적 반응양식	10-50	10-50	33.43	7.08	-.21	.39
학교환경적응	9-45	9-45	27.80	7.05	-.00	-.03
학교 학교교사적응	9-45	9-45	27.58	7.39	-.20	.04
생활 학교수업적응	8-40	8-40	23.91	5.45	-.15	.45
적응 학교친구적응	8-40	8-40	26.91	5.09	-.06	.36
학교생활적응	7-35	10-35	24.24	4.21	-.09	.27

자료로서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의 최고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측정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 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데(Kline, 2005), 본 연구에서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r=.40, p<.01$)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반추적 반응양식은 수치심 경향성($r=.60, p<.01$)과 죄책감 경향성 ($r=.15, p<.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성적 반응양식도 수치심 경향성($r=.24, p<.01$)과 죄책감 경향성 ($r=.37, p<.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한 죄책감 경향성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척도인 학교환경적응($r=.25, p<.01$), 학교교사적응 ($r=.29, p<.01$), 학교수업적응($r=.33, p<.01$), 학교친구적응($r=.40, p<.01$), 학교생활적응($r=.432, p<.01$) 모두 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반추적 반응양식은 학교환경적응($r=-.10, p<.05$), 학교교사적응($r=-.13, p<.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39, p<.01$).

주요변인들의 남녀 집단 간차이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성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독립집단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남학생, 여학생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별 차이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남녀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치심 경향성($t=-2.77, p<.01$)과 죄책감 경향성($t=-3.40, p<.01$), 반추적 반응양식 ($t=-3.69, p<.001$)학교환경적응($t=3.62, p<.001$), 학교교사적응($t=3.57, p<.001$)에서 유의미한 차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N=544)

	1	2	3	4	5	6	7	8	9
1. 수치심 경향성									
2. 죄책감 경향성	.40**								
3. 반추적 반응양식	.60**	.15**							
4. 반성적 반응양식	.24**	.37**	.39**						
5. 학교환경적응	-.03	.25**	-.10*	.14**					
학교 6. 학교교사적응	-.04	.29**	-.13**	.18**	.60**				
생활 7. 학교수업적응	-.05	.33**	-.07	.22**	.53**	.50**			
적응 8. 학교친구적응	-.02	.40**	-.07	.22**	.55**	.54**	.42**		
9. 학교생활적응	-.02	.43**	-.04	.27**	.58**	.51**	.59**	.59**	

* $p < .05$, ** $p < .01$

표 4. 주요변인의 남녀 청소년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결과 (N=544)

변인	남(N=257)	여(N=287)	t(df)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수치심 경향성	34.54(6.96)	36.12(6.37)	-2.77(542)**
죄책감 경향성	41.98(6.48)	43.79(5.93)	-3.40(542)**
반추적반응양식	38.05(9.93)	41.07(9.17)	-3.69(542)***
반성적반응양식	33.24(7.40)	33.60(6.78)	-.60(542)
학교환경적응	28.94(6.73)	26.78(7.17)	3.62(542)***
학교 학교교사적응	28.76(7.21)	26.52(7.41)	3.57(542)***
생활 학교수업적응	23.80(5.72)	24.01(5.20)	-.45(542)
적응 학교친구적응	26.61(5.10)	27.19(5.08)	-1.33(542)
학교생활적응	24.06(4.38)	24.39(4.05)	-.93(542)

* $p < .05$, ** $p < .01$, *** $p < .001$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성적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간 구조적 관계

구조모형의 검증 및 적합도 분석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차이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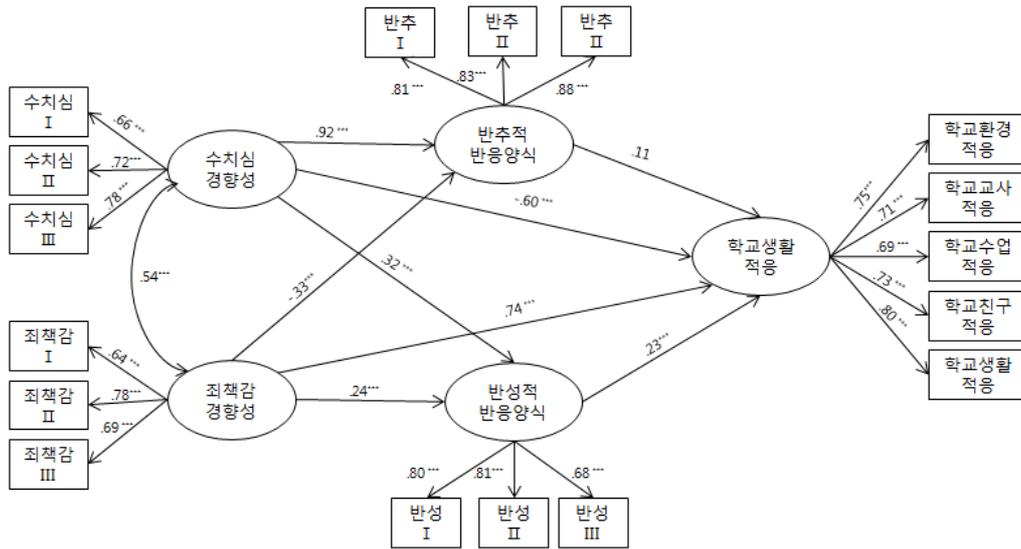
(N=544)

	X^2	ΔX^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415.79		110	.93	.91	.07
경쟁모형	504.17	88.37	112	.91	.89	.08

각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가 나타났으나, 경쟁모형은 적합도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모형: $X^2(110)=415.79$, $p<.001$, CFI=.93, TLI=.91, RMSEA=.07 /경쟁모형: $X^2(112)=504.17$, $p<.001$, CFI=.91, TLI=.89, RMSEA=.08). X^2 차이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Delta X^2(2)=88.37$ 로 나타나 자유도 차이 값이 2일 때 유의미한 차이인 $\Delta X^2=5.99(p=.05)$ 보다 컸으므로 경쟁모형보다 연구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분석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그림 3과 표 6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반추적 반응양식에서 학교생활 적응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치심 경향성에서 학교생활 적응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beta = -.60$, $p<.001$) 죄책감 경향성에서 학교생활 적응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74$, $p<.001$), 수치심 경향성이 반추적 반응양식($\beta=.92$, $p<.001$), 반성적 반응양식($\beta=.32$, $p<.001$)으로 가는 경로는 정



*** $p<.001$

그림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표 6.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모수	추정치(Estimate)		t
	비표준화 추정치(B)	표준화 추정치(β)	
수치심 경향성 → 반추적 반응양식	1.11	.92	12.38***
수치심 경향성 → 반성적 반응양식	.28	.32	5.13***
죄책감 경향성 → 반추적 반응양식	-.50	-.33	-5.28***
죄책감 경향성 → 반성적 반응양식	.26	.24	3.78**
반추적 반응양식 → 학교생활적응	.20	.11	.97
반성적 반응양식 → 학교생활적응	.63	.23	4.11***
수치심 경향성 → 학교생활적응	-1.39	-.60	-4.06***
죄책감 경향성 → 학교생활적응	2.14	.74	7.56***

*** $p < .001$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죄책감 경향성이 반추적 반응양식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고($\beta = -.33, p < .001$), 반성적 반응양식($\beta = .24, p < .001$)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반성적 반응양식이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23, p < .001$).

반성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에 대해 수치심 경향성이 반성적 반응양식에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죄책감 경향성이 반성적 반응양식에 영향을 주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의 공식¹⁾을 사용하여 Z값을 산출하였다.

Sobel test 결과,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의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21, p < .01$). 또한 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냈다($Z = 2.78, p < .01$). 각 변인들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최종모형을 효과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모형을 통해 밝혀진 변인들간의 간접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좀 더 세밀히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간접효과란 두 변인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뜻한다. 수치심 경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전체효과가 -.52, 직접효과가 -.60, 간접효과가 .07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방향이 달라 반성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는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책감 경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전체효과가 .80, 직접효과가 .74, 간접효과가 .06으로 나타나 반성적 반응양식이 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Z = \frac{ab}{\sqrt{b^2 S_a^2 + a^2 S_b^2}}$

표 7.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수치심 경향성	반성적 반응양식	.32	-	.34
	학교생활적응	-.60	.07	-.52
죄책감 경향성	반성적 반응양식	.24	-	.23
	학교생활적응	.74	.06	.80

표 8. 남녀 청소년 집단별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 차이검증

	X^2	ΔX^2	df	CFI	TLI	RMSEA
남자(n=257)						
연구모형	278.93		110	.92	.90	.08
경쟁모형	324.26	45.33	112	.90	.87	.09
여자(n=287)						
연구모형	259.87		110	.93	.92	.07
경쟁모형	319.00	59.13	112	.91	.89	.08

주요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남녀집단 간 비교

남녀 집단에서의 가설 모형의 동등성 검증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따라 변인들간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녀 집단에서의 요인구조가 동일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형태 동등성 검증을 하였다. 남녀 집단 각각의 연구모형과 연구모형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

감 경향성이 학교생활적응 직접 가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한 적합도 지수 및 모형 차이검증은 표 9에 제시하였다. 남녀 집단 모두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남: $X^2(110)=278.93, p<.001, CFI=.92, TLI=.90, RMSEA=.08$ / 여: $X^2(110)=259.87, p<.001, CFI=.93, TLI=.92, RMSEA=.07$)는 수용가능했으나,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좋지 못했다(남: $X^2(112)=324.26, p<.001, CFI=.90, TLI=.87, RMSEA=$

표 9. 연구모형과 측정동일성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 차이검증

	X^2	ΔX^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538.81		220	.92	.91	.05
측정동일성모형	549.70	10.89	232	.93	.91	.05
완전제약모형	571.49	21.79	240	.92	.91	.05

.09/ 여: $X^2(112)=319.00$, $p<.001$, CFI=.91, TLI=.89, RMSEA=.08). X^2 차이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남자 집단은 $\Delta X^2(2)=45.33$ 으로 나타나 자유도 차이 값이 2일 때 유의미한 차이인 $\Delta X^2=5.99(p=.05)$ 보다 컸고, 여자 집단 또한 $\Delta X^2(2)=59.13$ 으로 $\Delta X^2=5.99(p=.05)$ 보다 커 남녀 집단 모두에서 연구모형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집단 모두 연구모형을 선택하여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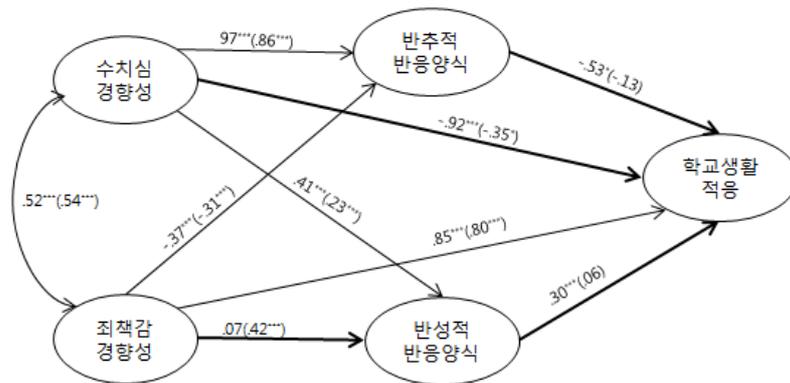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어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은 각각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연구모형의 X^2 값과 자유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측정동일성 모형과 연구모형의 X^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Delta X^2(12)=10.89$, $p=.54$). 따라서 남녀 두 집단에 측정도구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성별에 따른 모형의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이 만족되어 남녀 집단간 특정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차이검

증 결과, 측정동일성 모형과 완전제약 모형의 X^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Delta X^2(8)=21.79$, $p=.005$). 연구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 완전제약모형을 비교한 적합도 지수 및 모형 차이검증은 표 9에 제시하였다.

남녀 집단의 경로 차이 비교

이는 두 집단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 집단과 여자 청소년 집단간 경로계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경로계수에 대한 집단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을 추정하였다. 8개 경로계수 각각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X^2 의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X^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두 집단 간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남녀 청소년 집단간의 경로차이 결과는 그림 4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결과에서 보듯이 남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로는 죄책감 경향성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으로 가는 경로, 반추적 반응양식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 반성적 반응



주. ()안은 여자청소년 집단, 진한선: 경로계수 차이 유의미 $^{***}p<.001$, $^{**}p<.05$

그림 4. 모형에 대한 남녀 청소년 집단의 경로도

표 10.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B)		표준화 추정치(β)		$\Delta X^2/df$	채택 여부
	남	여	남	여		
수치심 경향성 → 반추적 반응양식	1.22***	.98***	.97***	.86***	.49	기각
수치심 경향성 → 반성적 반응양식	.36***	.20**	.41***	.23**	.82	기각
죄책감 경향성 → 반추적 반응양식	-.56***	-.45***	-.37***	-.31***	.15	기각
죄책감 경향성 → 반성적 반응양식	.07	.48***	.07	.42***	5.73*	채택
반추적 반응양식 → 학교생활적응	-.94*	-.26	-.53*	-.13	6.51*	채택
반성적 반응양식 → 학교생활적응	.80***	.15	.30***	.06	3.92*	채택
수치심 경향성 → 학교생활적응	-2.28***	.83*	-.92***	-.35*	3.86*	채택
죄책감 경향성 → 학교생활적응	2.28***	2.41***	.85***	.80***	.01	기각

*** $p < .001$, ** $p < .01$, * $p < .05$

표 11. 남자청소년 집단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수치심 경향성	반성적 반응양식	.41	-	.41
	학교생활적응	-.99	.12	-.87

양식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 수치심 경향성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였다. 집단간 차이를 보인 네 경로 중 죄책감 경향성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남자 집단의 경로계수가 여자 집단의 경로계수보다 더 컸다. 여자 집단의 경우,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간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남자 집단은 두 반응양식 모두 학생생활적응과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간 관계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 ($Z=2.79$, $p < 0.01$)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추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 각 변인들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최종 모형을 효과분석 한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수치심 경향성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은 전체효과가 -.87, 직접효과가 -.99, 간접효과가 .12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방향이 달라 반성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는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과 수치심 경향성 및 죄책감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반응양식

을 하나의 과정적 변인으로 상정해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고, 성별에 따른 모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창석(2009)의 연구와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송수민(2008)의 연구와 일치했으며,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과 죄책감 경향성간 정적인 상관을 보인 기존 연구들(Roos, Salmivalli, & Hodges, 2014; Tilghman-Osborne et al., 2008; 이지연, 2011)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최근 들어 죄책감 경향성의 부적응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갖는 추세를 뒷받침한다.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은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에 상대로 수치심 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과, 죄책감 경향성은 반추적, 반성적 반응양식과 정적 상관을 가졌다는 연구(송수민,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수치심은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자기 통합성을 지향한다.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비해 이러한 자기 불일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불일치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반성적 사고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수치심 경향성이 반추적 반응양식 뿐만 아니라 반성적 반응양식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것은 수치심이 죄책감과 유사하게 자의식적 정서로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Barrett, 1995; 김시업, 김기범, 2003).

남자 청소년 집단과 여자 청소년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세 변인들 모두에서 여자 청소년 집단이 남자 청소년 집단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여자 청소년 집단이 남자 청소년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을 가지며, 더 많이 반추적 반응양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 모두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Lewis(1971)가 남성과 여성의 인지양식이 달라 여성이 남성보다 수치심이 높게 나타나고 남성이 여성보다 죄책감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으나,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에서 성차를 비교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일치하였다(Roos, Salmivalli, & Hodges, 2014; Orth, Soto, & Robins, 2010; 김정민, 2012; 김지연, 2010). 여자 청소년 집단이 남자 청소년 집단에 비해 반추적 반응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은 우울기분에 대한 반응으로 보다 행동적인 반응을 하며, 여성은 반추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Treynor et al., 2003; Nolen-Hoeksema et al., 1993; 김명순, 2012; 박혜원, 2006; 최미례,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추적 반응양식, 반성적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추적 반응양식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면,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생활부적응에, 죄책감 경향성은 학

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죄책감 경향성이 더 적응적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Ranganadhan & Todorov, 2010; Orth et al., 2010; Schmader & Lickel, 2006; Strelan, 2007; Jacoby, 1991; 송수민, 2008; 이지연, 2011).

수치심 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으로 가는 경로 모두가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죄책감 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과는 부적으로, 반성적 반응양식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높은 수치심 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을 더 많이 하도록 하며, 죄책감 경향성은 반추적 반응양식을 덜 하게 하고 반성적 반응양식을 더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수치심 경향성이 반추적 반응양식 외에도 반성적 반응양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은 반성적 반응양식을 통해 수치심 경향성의 부정적 기능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응양식 중 반성적 반응양식이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가 유의미했는데, 이는 긍정적 반응양식으로서의 반성적 반응양식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Treynor et al., 2003; Bagby & Parker, 2001; Cox et al., 2001; Roberts, Gilboa, & Gotlib, 1998; Trapnell & Campbell, 1999; 송수민, 2008; 신우승, 2006; 박윤아, 신민섭, 이영호, 2006; 김진영, 200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청소년의 수치심/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반응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반추적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반성적 반응양식의 매개효과만을 확인한 결과, 죄책감 경향성은 반성적 반응양식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

활적응이 증가했고, 수치심 경향성은 반성적 반응양식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부적응이 감소되었다. 특히 수치심 경향성의 경우, 반성적 반응양식이 학교생활부적응에 억제효과를 갖는 결과는 반성적 반응양식을 통해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차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 집단은 죄책감 경향성이 반성적 반응양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여자 청소년 집단의 죄책감 경향성은 반성적 반응양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남자 청소년 집단의 반추적 반응양식과 반성적 반응양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추적/반성적 반응양식과 부적응과의 관계에 있어 침투적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통제감이 중재효과를 갖는데, 이러한 사고통제감에서 성차가 보고되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고통제감이 높았다(박혜원, 오경자, 2009; 소영, 박기환, 2015). 이러한 연구들로 볼 때,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사고통제감의 수준이 높아 반응양식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치심 경향성은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보다 학교생활적응에 더 강하게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남자청소년 집단에서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간 관계를 반성적 반응양식이 매개했으며 그 효과는 억제효과였다. 이는 반성적 반응양식을 통해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학생 집단에서 수

치심 경향성이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학생 집단에 비해 강력해 남자청소년에게 수치심 경향성이 적응에 더 위협요인이라고 한다면,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의 반성적 반응양식의 긍정적 역할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수치심 경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죄책감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이질적인 측면과 죄책감 경향성의 긍정적 기능에 관심을 두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반성적 반응양식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양식으로서의 반성적 반응양식을 다시 한 번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둘째,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반성적 반응양식을 통해 죄책감 경향성이 더 적응적이 될 수 있으며, 수치심 경향성의 부적응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만 밝힐 뿐 이들 정서가 언제 더 적응적인지 밝히지 못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셋째,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구분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우울이나 병리적 측면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적응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무조건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의 반응양식에 따라 덜 부정적이 되거나 더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반응양식을 잘 파악하고 대처해 나

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개인들을 조력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 보다 자신의 행동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반성적 반응양식을 격려하여 주는 것은 죄책감 경향성, 수치심 경향성이 이후 적응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의식적 정서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화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녀 집단간 비교를 통해 주요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존의 연구들이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에서의 평균점수 비교나 상관관계를 통해서만 성차를 밝혔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간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반성적 반응양식은 수치심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남학생 집단에서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학생 집단에 비해 강력해 남자청소년에게 수치심 경향성이 적응에 더 위협요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치심 경향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반성적 반응양식의 긍정적 역할을 밝혀낸 것은 남자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으로 인한 학교생활부적응을 예방하는 개입전략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들을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피험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4개 학교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학년 별 피험자 수 간 편차가 있어,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학년분포가 넓다는 것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지역과 학교를 확대하고, 학년간 피험자 수의 균형을 맞춰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좀 더 좁은 연령분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치심, 죄책감의 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완전하게 분리해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순수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추후 이러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반응양식, 학교생활적응간 구조적 관계에서 성차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남학생 집단에서 수치심 경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반성적 반응양식의 역할을 밝혀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반응양식과 학교생활적응간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음에 따라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반응양식 외에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

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39-52.

김경희 (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5.

김명순 (2012). 반추적, 반성적, 주의전환적 반응양식과 우울의 관계: 상위-기분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시엽, 김기범 (2003).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감정의 관계: 도덕적 자기로서의 염치와 도덕적 감정으로서의 부끄러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87-101.

김용래 (1993). 학업성취에 대한 기여 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래 (2000).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삼.

김진영 (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 초점과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류설영 (1998).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수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신 (2004).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윤아, 신민섭, 이영호 (2006).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4), 1105-1121.

박지현 (2007).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혜원 (2006). 내부초점적 반응양식이 우울에 미

- 치는 영향: 반추적 반응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 오경자 (2009). 대학생의 내부초점적 반응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고통제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19-30.
- 소 영, 박기환 (2015). 분노반추와 분노의 관계에서 사고통제감의 조절효과. *인지행동치료*, 15(1), 95-111.
- 송수민 (2008).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의 심리적 특성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25-144.
- 신우승 (2006). 우울한 기분에서 취할 수 있는 내부초점적 반응양식의 구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은 (2011). 고등학생의 수치심 및 죄책감 경향성 비교연구: 대인관계와 학업에서의 동기, 성공경험 후 반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현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61-84.
- 이지연 (2011). 청소년 상담에서 이타주의 이해의 중요성. *청소년상담연구*, 9, 158-188.
- 최미례 (2004). 우울에 미치는 우울반응양식의 효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53-972.
- 최지은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 200-210.
- 최창석 (2009). 수치심, 죄책감의 이질성: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동기,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gby, R. & Parker J. (2001). Relation of rumination and distraction with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in a sample of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91-102.
- Barrett, K. C. (1995). *A functional approach to shame and guilt*. In J. P. Tangney & K. W. Fisher (Eds.), *Self-conscious emotions*(pp.25-6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x, B., Enns, M., & Taylor, S. (2001). The effect of rumination as mediator of elevated anxiety in major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525-534.
- Crozier, W. R., & Burnham, M. (1990). Age-related differenc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shynes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179-185.
- DiClemente, R. J., Hansen, W. B., & Ponton, L. E. (1996). *Handbook of adolescent health risk behavior*. New York: Plenum Publishing.
- Emmons, R. A. (1997). Motives and life goals,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485-512. New York: Academic Press.
- Greenberg, L. S. (2002). *Emotion-focused therapy: coaching clients to work through their feelings*.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erguson, T. J., Stegge, H., Miller, E. R., & Olsen, M. E. (1999). Guilt, shame, and symptoms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47-357.
- Fergus, T. A., Valentiner, D. P., McGrath, P. B., & Jencius, S. (2010). Shame- and guilt-proneness: Relationships with anxiety disorder

- symptoms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4, 811-815.
- Gilbert, P., & Miles, J. N. V. (2000). Sensitivity to social put-down: it's relationship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shame, social anxiety, depression, anger and self-other blam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4), 757-774.
- Harder, D. H., &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729-745.
- Keltner, D., & Buswell, B. N. (1996). Evidence for the distinctness of embarrassment, shame and guilt: A study of recalled antecedents and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10, 155-171.
- Kim, S., Thibodeau, R., & Jorgensen, R. S. (2011). Shame, guilt, and depressive symptom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7, 68-96.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ester, D. (1998). The association of shame and guilt with suicidal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 535-536.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 (1987).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indsay-Hartz, J. (1984). Contrasting experiences of shame and guil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 689-704.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Lutwak, N., & Ferrari, J. R. (1997). Understanding shame in adults: retrospective perceptions of parental-bonding during childhood.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0), 595-598.
- Lynch, J. S., Hill, E. D., & Nagoshi, C. T. (2012). Mediators of the shame-guilt-psychological adjustment relationship.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3, 437-443.
- McGregor, H. A., & Elliot, A. J. (2005). The Shame of Failure: Examining the link between fear of failure and sha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18-231.
- McMurrich, S., L., & Johnson, S. L. (2009). The role of depression, shame-proneness, and guilt-proneness in predicting criticism of relatives towards people with bipolar disorder. *Behavior Therapy*, 40(4), 315-324.
- Mehrabian, A. (197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affiliative tendency and sensitivity to rejec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 417-428.
- Nolen-Hoeksema, S. & Morrow, J. (1991). A prospective study of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fter a natural disaster: The 1989 Loma Prieta earthquak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15-121.
- Nolen-Hoeksema, S. & Morrow, J. (1993). Effects of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naturally-occurring depressed mood. *Cognition*

- and Emotion*, 7, 561-570.
- Noeln-Hoeksema, S., Morrow, J., & Fredrickson, B. L. (1993). Response styles and the duration of episodes of depressed m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0-38.
- Nolen-Hoeksema, S., Parker, L., & Larson, J. (1994).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ive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2-104.
- Orth, U., Soto, C. J., & Robins, R. W. (2010). Tracking the Trajectory of Shame, Guilt, and Pride Across the Lif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6), 1061-1071.
- Pekrun, R., Elliot, A. J., & Maier, M. A. (2009). Achievement Goals and Achievement Emotions: Testing a Model of Their Joint Relations With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 115-35.
- Ranganathan, A. R., & Todorov, N. (2010). Personality and self forgiveness: The roles of shame, guilt, empathy, and conciliatory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9, 1-22.
- Roberts, J. E., Gilboa, E., & Gotlib I., H. (1998). Ruminative response style and vulnerability to episodes of dysphoria: Gender, neuriticism, and episode dur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 401-423.
- Roos, S., Salmivalli, C., & Hodges, V. E. (2014). Do Guilt- and Shame-Proneness Differentially Predict Prosocial, Aggressive, and Withdrawn Behaviors During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0(3), 941-946.
- Schmaling, K., Dimidjian, S., Kation, W., & Sullivan, M. (2002). Response styles and cognitive and affective symptoms of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1053-1065.
- Schmader, T., & Lickel, B. (2006). The approach and avoidance function of guilt and shame emotions: Comparing reactions to self-caused and other-caused wrongdoing. *Motivation and Emotion*, 30, 42-56.
- Schoenleber, M. & Berenbaum, H. (2010). Shame aversion and shame proneness in Cluster C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 197-205.
- Strelan, P. (2007). Who forgive others, themselves, and situations? The roles of narcissism, guilt, self-esteem, and agreeabl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2), 259-269.
- Stuewig, J., & McCloskey, L. A. (2005). The relation of child maltreatment to shame and guilt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routes to depression and delinquency. *Child Maltreatment*, 10, 324-336.
- Tangney, J. P., Barlow, D. H., Wagner, P., Marschall, J. E., Borenstein, J. K., Sanftner, J., Mohr, T., & Gramzow, R.(1996).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80-796.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 Tilghman-Osborne, C., Cole, D. A., Felton, J. W., & Ciesla, J. A. (2008). Relation of

- guilt, shame, behavioral and characterological self-blame to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over ti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 809-842.
- Tracy, J. L., Cheng, J. T.,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9). Authentic and hubristic pride: The affective core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Self and Identity, 8*, 196-213.
- Tracy, J. L., Robins, R. W., & Tangney, J. P. (Eds.). (2007). *The self-conscious emotion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Tracy, J. L., & Robins, R. W. (2004). Putting the self into self-conscious emotions: A theoretical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5*, 103-125.
- Trapnell, P. D., & Campbell, J. D. (1999).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tinguishing rumination from ref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284-304.
- Treynor, W., Gonzalez, R., & Nolen-Hoeksema, S. (2003). Rumination reconsidered: A psychometric analy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3), 247-259.
- Williams, C., & Bybee, J. (1994). What do children feel guilty about? Developmental and gender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617-623.

1차원고접수 : 2015.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5. 06. 08

최종게재결정 : 2015. 06. 09

The Relations among Shame/Guilt-proneness, Response style and School adjustment

Dawon Shin¹⁾

Heejeong Bang¹⁾

Jeung Ok²⁾

¹⁾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²⁾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plored structural correlations among adolescent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ruminative and reflective response styles, and school adjustment as well as gender differences in these correlations. We found significant correlations for all factors except proneness to shame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each factor show that proneness to shame predicts school maladjustment, ruminative response, and reflective response. In addition, proneness to guilt and ruminative response predict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mediation analysis indicate that a reflective response style has an indirect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neness to shame and school adjustment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neness to guilt and school adjustment. Greater proneness to guilt increased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via response style; similarly, greater proneness to shame decreased the level of school maladjustment via response style. We also foun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path coefficients. In male adolescents, a reflective response styl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neness to shame and school adjustment; moreover, proneness to shame decreased the nega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ruminative response style, reflective response style, school adjustment